

1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69.85 (-18.33)	799.06 (-12.05)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681 (-0.020)	1296.90 (0.00)

# metro 경제

달아들 구별 말고

1인가구  
1000만 시대 온다  
4인가구는 뚝  
02 돌만 낳아 잘 기르자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 고금리에 가계·기업 빚 눈덩이... 韓 불황그늘 짙어진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 주담대 증가로 가계대출 지속 늘어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3위로 높아 한은 “성장세 둔화·경기침체 우려”



유도이미지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르게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부실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면 경제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100.2%로 주요 6개국 중 4위로 집계됐다. 스위스(125.5%), 호주(110.0%), 캐나다(102.9%)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분기에도 우리나라는 61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 ◆ GDP 대비 가계대출 100.2%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100.5%) 100%를 넘어선 뒤 2021년 3분기(105.7%)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추세다.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줄어서가 아니라 분자인 GDP가 성장세를 보여서다. 한

국은행에 따르면 GDP는 지난해 말 -0.3%에서 1분기 0.3%, 2분기 0.6%, 3분기 0.6% 성장했다.

가계대출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2조2000억원 증가한 가계대출은 6월 5조8000억원, 8월 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과 6월, 8월은 모두 가계대출 증가액보다 주담대 증가액이 많았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였음에도 주담대가 늘며 가계대출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

한다. 한은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중장기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제한돼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주담대에 쏠려 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부실이 확대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 ◆ 취약기업 부실 가능성 ↑

기업부채도 지켜보던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3분기 GDP 대비 비(非) 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126.1%로 1년전(120.4%)과 비교해 5.7%포인트 늘었다. 홍콩(267.9%)과 중국(166.9%)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업부채는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 은행의 대출을 선호하면서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간 고금리로 운영되는 회사채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에 단기로 기업대출을 받는 비중이 늘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논술고사 마친 수험생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

## GM·듀폰 등 美 4개社, 한국에 1.5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 訪美 중 투자신고 연간 4.5조 수출확대 효과 예상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첨단 기업 4곳이 한국에 1조5000억원(11.6억달러)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GM·듀폰(Dupont)·IMC·에코랩(Ecolab) 등 4개 기업이 이같은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수출확대,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APEC CEO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정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 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

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GM의 투자계획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듀폰은 국내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은 100명 이상이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윤 대통령 방미 계기 신고한 투자자의 2배 규모 추가 투자로, 한국을 듀폰의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듀폰은 지난해 9월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도체 소재 EUV용 감광제·화학기체 연마 패드·패키징 R&D센터 및 제조시설 증설에 투자

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IMC의 소재부품 분야 한국내 6번째 투자 프로젝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소재부품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폴로이드 실리카)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최초로 해외에 고순도 나노입자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에 대한 후속지원과 함께 킬러규제 허파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APEC 마친 尹, 민생 점검하고 경제외교 이어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오는 20일 영국 국민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전날(18일) 늦은 밤 성남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여하기 위해 ▲교역·투자 및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분야별 ‘연결성’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과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비롯해 APEC 차원의 스마트 모빌리티 특별 이니셔티브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

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인적 교류 활성화, 에너지 안보·기술 관련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IPEF에서는 공급망 위기 시 발동되는 각국 고위급 회의체인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 등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타결됐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野, 정부 예산 깎고 이재명 예산 늘려... 무소불위 폭주” /사진 뉴스스  
▲ 與, 이준석 지지자 연락망 구축에 “당 전열 정비·화합에 좋지 않아”

▲ 민주,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 문구 삭제... “당 아닌 업체 제작”  
▲ 민주 “아동학대·폭력 여전... 정부 역할 강화해야”



▲ 신원식 “북, 일주일 내지 늦어도 30일 전에 정찰위성 3차 발사” /사진 뉴스스  
▲ 외교장관, 캐나다·멕시코 회담... 북 인권문제 지원 당부